

을미년 하안거 결제법어

“참나를 밝히는 일에 몰두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



太平治業無像(태평치업무상)이요 野老家風至淳(야노가풍지순)이라. 只管村歌社飲(지관촌가사음)하니 那知舜德堯仁(나지순덕요인)이리요.

태평세월에 업을 다스리는 때는 상이 없음이요, 들끓은이들의 가풍은 저극히 순함이라. 다윗 촌에서 노래하고 모여서 마시는저라. 이에 순임금의 덕과 요임금의 어질음을 어찌 아리요.

급일은 을미년 夏安居(하안거) 결제일이라. 모든 결제대중은 부처님께서 사바에 출세하신 뜻을 좇아 일구실심 참나를 밝히는 일에 몰두해야 함이로다. 우리가 세속의 온갖 부귀영화도 마다하고 일가친족 등 정으로 맺은 인연을 다 끊고 출가하여 머물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오로지 나고죽는 고통을 영구히 여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아니함 이로다.

불가(佛家)에는 여러 수행법이 있지만은 다른 여타의 수행법으로는 대오견성(大悟見性)이 불가능하고 오직 간화선 수행만이 이 일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니, 다짐생애에 만나기 힘든 이 견성법(見性法)을 만난 감에 이번 생은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수양에 몰두해야 함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참나를 밝혀 생사(生死)를 요달(了達)할 수 있음인가?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

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야 함이로다. 화두를 챙기고 의심을 주욱 밀어주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반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이 끊어짐이 없도록 혼신을 다해 참구해야 함이로다. (종략)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는 도저히 혼자서는 다 알았다 할 수 없기에 반드시 먼저 깨달은 눈높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점검받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로다.

이렇듯 대오견성하기 위해서는 선지식의 지도 아래 철두철미한 신심으로 간절하게 의심하며 화두를 챙겨가야 함이로다.

그러니 모든 대중은 이 같은 자제로써 어떻게든 이번 안거 동안에 특력하여 불은(佛恩)과 시은(施恩)을 다 갚고 생사를 요달할 수 있도록 혼신의 정력을 쏟을지 여다. (하략)

전국 선원, 을미년 하안거 결제

6월 1일 2400여 명 방부

전국 사찰과 선원이 6월 1일 을미년 하안거를 맞아 결제 법회를 열고 안거에 들어갔다.

안거(安居)는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차년도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것으로, 출가수행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정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계종에서는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400여 명의 수좌스님들이 방부를 들어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종정 스님과 총림 방장 스님들의 결제 법어도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결제법어에서 “출가하여 머물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오로지 나고 죽는 고통을 영구히 여의고자 하는데 있다”면서 “모든 결제대중은 일구실심 참나를 밝히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고 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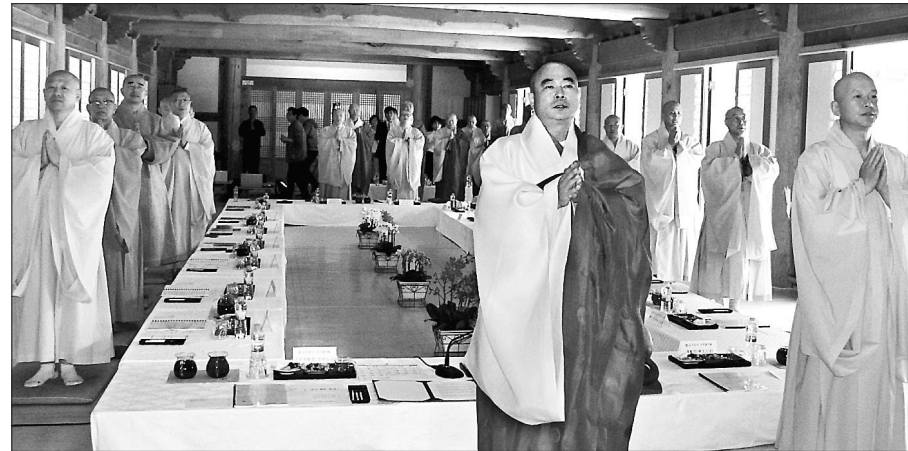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하안거 결제 법어에서 “본분납자는 대신심과 대용맹심, 대의심으로 삼계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생사공안을 밝혀야 한다”면서 “도솔천 내원궁에 거꾸로 매달려도 주인이 되고 아수라의 정수를 바로 봐야도 진실되게 참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하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사람의 가슴으로 해원상생의 길을 택한다면 다함께 사는 법이다. 이번 철에 각자의 은산철벽을 타파한다면 악각악습까지 녹아세게 인류 평화를 이루는데 큰 빛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교구별 불사자문위원회 구성된다

28일 본사주지協서 논의 국고보조금 투명성 제고

사찰·지자체 포함한 7인 구성 해당 본사 주지가 위원장 맡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5월 28일 신총사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불사자문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 사찰과 지자체, 문화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불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우송)는 5월 28일 신총사에서 열린 39차 회의에서 불사자문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문화부장 헤일 스님은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청과의 협의사항을 보고했다.

불사자문위원회 구성은 지난 2012년 감사원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문화재보수 사업과 관련해 사찰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문화재청은 사찰 문화재 보수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헤일 스님이 발표에 따르면 불사자문위원회는 해당 교구본사 주지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본사 주지가 추천하는 2인과 지

자체 공무원 2인, 문화재 전문가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불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불사 과정에서 해당 사찰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장기적으로 불사자문위원회는 사찰 불사에 대한 전반적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확대될 방침이다. 헤일 스님은 “현재 보수정비 업체를 선정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지만 향후 불사자문위원회는 사찰 불사와 관련한 종합적 심의 기구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대체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지자체 위원을 교구본사 지역 공무원 1인과 불사 해당 사찰 지역 공무원 1인이 포함되도록 수정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불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교구본사주지들은 5월 16일 세계평화기원대법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회장 우송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현조스님, 총무간사 덕문스님, 재무간사 원경스님 등 본사 주지 스님 13명과 총무부장 지현스님, 문화부장 헤일 스님 등이 참석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40차 회의는 오는 7월 28일 오후3시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통도사 주지 선출 문도간 갈등 심화

노천문도회 27일 산공 스님 추천 성파 스님 측 “적법한 회의 아냐”

통도사 주지 임기가 5월 29일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통도사 최대 문중인 노천문도회 내에 차기 주지 선출에 관련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통도사 노천문도회는 150여명의 문도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7일 통도사 선원 보광전에서 문도회의를 열고 차기 주지 후보로 산공 스님을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문도대표 성파 스님 측은 “문도회의는 불법적으로 소집돼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며 “성파 스님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바로 그런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라며 적법하지 못한 회의라고 강조했다. 문도 회의의 소집이 문도대표 성파 스님의 결정이 아닌 문장 초우 스님의 결정으로 이뤄져 과정상 적법하지가 않다는 뜻이다.

회의를 진행한 현문 스님은 “대표 스님이 소집에 동의했다”고 발언하며 회의의 진행을 계속 진행했다.

주지 후보에 추천된 산공 스님은 “성원에 감사하며 통도사를 근립하지 않고 공유했다 나누고 봉사하는 사찰로 이끌겠다. 보다 공개된 사찰이 되도록 여러 분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동국대학교 이사회 영담 스님 이사 해임

5월 26일 결정... 학내 개편 등

동국대 이사회가 영담 스님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일면)는 5월 26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제291회 이사회를 열고 찬성7표, 반대1표로 영담 스님의 이사직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성담, 심경, 명신, 삼보, 미산 스님과 안채란, 김진선 이사 등 재적이사 10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이원택 이사는 해임안 처리시 중도 퇴장했으며 영담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사회는 임원 해임안 외에도 정관개정안을 비롯해 2014학년도 결산승인안, 교원인사안, 교원징계요구안, 경주병원 시설자금 기채승인안 등을 다뤘다.

정관개정안은 대학직제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부총장은 경영·학술 2인 체제에서 경영·기획·대의협력의 3인체제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기업형 본부조직이 저 단위로 변경됐다. 노덕현 기자

6월은 만해 스님 추모의 달

선학원, 음악예술제·다례제 등 행사 잇달아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집)이 6월을 ‘만해 스님 추모의 달’로 지정하고 문화예술·학술·다례제 등 다채로운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

만해음악예술제는 오는 6월 7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제1부 추모 합창제와 제2부 추모예술제로 나뉘어 봉행된다. 이날 전체 사회는 국악인 김종엽 씨가, 총감독은 김시울씨가 맡는다.

제1부 추모합창제는 ‘잠 없는 꿈’을 부제로 대전 심광사 합창단이 ‘여시연’을, 아산 보문사영산합창단이 ‘향심’을, 광명 청통사마야합창단이 ‘보람’을, 천안 쌍룡선원바라밀합창단이 ‘아리랑 모음’을, 제천 강천사문수합창단이 ‘향연’을, 인천 보각선원가람빈가합창단이 ‘광명진인승’을, 청주 풍주사야사합창단이 ‘아름다운 나라’를, 대구 보성선원 어린이회·청소년회가 ‘연등놀이 춤’과 ‘오늘은 좋은 날’

을 각각 부른다.

제2부 추모예술제는 ‘남이시여’를 부제로 음악과 시와 승무가 펼쳐진다. 락음국악단이 ‘Fly to the Sky’를 연주한다. 춤이 있는 시낭송에는 불자연예인 전무송 씨가 나와 만해의 시 ‘나는 잊고져’를, 음악이 있는 시낭송에는 프로젝트 시로 4인과 김상준 조명남 씨 등이 출연한다.

또 김성녀 씨가 출연해 ‘귀거래’와 ‘찬미의 나라’를 부른다. 특히 정준태, 김성녀, 만해음악예술제 연합합창단이 ‘남이시여’를 협연함으로써 예술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만해학술문화제는 6월 15일 오후 1시 삼각산 정법사 무설전에서 개최된다. 총 3부로 진행되는 학술문화제에서는 1부는 만해 스님에 대한 추모 강연을, 2부는 청소년 창작 시·수필 수상작품을 낭송하는 시간을 갖는다.

신성민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0기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실전문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